

# 광주시·전남도 '관광재단' 따로 설립한다

### 광주시 컨벤션뷰로 흡수...4개팀 25명으로 7월 출범 목표 정부 통합 운영 권고 속 각각 설립해 협력사업 추진키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관광 전담기구로 각각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각각 설립을 추진하는 관광재단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건을 내걸었지만, <광주일보 2019년 12월 26일자 1면> 양 시도는 기존 조직을 축소·청산 등을 거쳐 각각 재단 설립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 출연 기관으로 관광재단을 신설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설립 타당성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1차 협의에서 행안부와

설립 타당성과 관련해 큰 틀에서 협의를 마쳤고, 최근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2차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 시는 전국적으로 관광 전담 기구가 생겨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다음 달에는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설립이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기존 광주 컨벤션뷰로를 관광재단에 흡수시킬 방침이다. 조직 규모는 애초 구상(38명) 보다 줄여 경영기획, 관광마케팅, 관광진흥, 관광콘텐츠 등 4개 팀 25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컨벤션 뷰로의 현

재 인력 15명 대부분을 승계하고, 나머지 10여명은 새로 채용한다. 연간 예산은 재단 운영비 18억원, 민간 위탁 등 사업비 62억원 등 8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있는 컨벤션뷰로나 리모델링 중인 전일빌딩에 들어설 남도 관광센터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 관광재단이 광주와 통합을 고려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 나가는 했지만, 협의 끝에 각각 재단을 설립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7월에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전남도가 요청한 '전남관광재단' 설립과 관련,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남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심의위원회의 보완 조건은 현재 설립을 준비중인 광주관광재단과의 통합 운영방안을 고려하라는 것이었다. 지역 대표적 관광상품 할인카드인 남도패스의 경우 광주·전남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설립 추진과정에서 광주관광재단과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의를 끝내고 각각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의 관광산업 컨트롤 역할을 할 관광재단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지역화폐 '현금깡' 강력 대응

### 가맹점 취소·부당이득 환수 등 시·군과 현장점검·방지 캠페인

전남도가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악용,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지적(광주일보 1월 10일자 1면)에 대해 가맹점, 사용자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역화폐를 이용한 상품권 등 부정유통 근절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가맹점 현장점검,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도 나선다.

전남도는 12일 "지난 1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행복지역화폐 사업 시·군 간 답회를 열어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부정유통 근절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남행복지역화폐는 2019년 1108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 2534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해 발행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

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반면 올해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맹점 확보에 집중, 시·군 실태에 맞는 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할인율은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10%를 적용할 경우 특별기간에 한하며 행정안전부, 도와 사전 협의 후 가능하다. 개인별 월간 구매 한도는 평상시 70만원, 특별 기간 100만원을 최대로 하되, 시·군별 조례에 따라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가맹점 환전 한도 역시 시·군별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류 발행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 모바일 발행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불법 유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사과·배·단감·뽕은감 농작물재해보험 다음달까지 접수

전남도가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47일간 가입 신청할 수 있는 사과, 배, 단감, 뽕은감 등 4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해까지 사과, 배 등 과수 4종의 가입 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였지만, 올해는 1월로 앞당겨 신청받는다. 최근 이상 저온, 폭염, 가뭄, 서리, 태풍 등 잦아지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대상 자연재해는 조수해, 화재,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가을동상해, 일소피해(햇볕 데임)로 인한 손해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팔, 노지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5개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돼 총 67개 품목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18진실 알린 사제' 남재희 신부 은퇴 미사 지난 11일 오전 광주 북구 삼각동 천주교 삼각동성당에서 '5·18 민주화 운동 산중인' 중 한 명인 남재희(올리아노) 신부의 은퇴 감사 미사가 열렸다. <천주교 삼각동성당 제공>

# 전남도 첫 도입 '공익직불제' 안착 온힘

### 나주시 권역별 설명회

전남도가 농업을 통해 식량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전남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 직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농업기술원, 전남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 보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추진 근거가 마련돼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공익직불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익직불제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 지역 직불 등 6개 농업직불을 통합 개편해 기본 직불제와 선택 직불제로 구분해 시행한다. 기본 직불제는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재배면적 구간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선택 직불제는 기존에 추진됐던 경관보전 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 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또 농업인 등이 기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남구, 최영호 전 청장 비위내용 인사혁신처 통보

### 구청사 리모델링 관련

광주시 남구가 최영호 전 남구청장의 남구청사 리모델링 관련 비위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사혁신처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발위탁계약서 등에 위배돼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추진해 남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최영호 전 청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광주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011년 1월 체결한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며, 368억원에 달하는 청사 리모델링 비용의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남구 청사 리모델링 비용인 350여억 원의 상환 책임이 남구 청에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남구에 보내왔다. 감사원은 또 감병내 남구청장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발위탁계약

서 등에 위배돼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추진, 남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최영호 전 청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남구는 감사 결과를 받은 이후 2개월 내에 최 전 청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야 했지만, 재심 청구가 진행되면서 통보를 잠시 미뤘다. 하지만 재심에서 남구의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최 전 청장의 비위를 인사혁신처로 통보하라는 결정문은 내려오지 않았다.

이후 7개월여가 흐르도록 감사원의 결정문 통보가 오지 않자, 남구는 자체적으로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지난 6일 인사혁신처에 최 전 청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와 캠코 간 개발원리금 상환책임 분쟁과 달리 징계 등에 대한 재심결과와 통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최 전 청장의 비위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비위 내용은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자료와 공직후보자 관리 등에만 활용될 뿐, 선거출마 등 피선거권 등이 제한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김영록 전남지사 '블루 이코노미' 실현 유럽 순방

### 12일 스웨덴·스페인 등 3국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새 천 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12일 6박 8일 일정으로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김 지사의 이번 유럽 순방은 올해를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 원년으로 삼고, 도청 역량을 집중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계획됐다.

순방 첫 날인 13일 신년사에서 올해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밝힌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관련해 2016년 세계 최초로 해당 시설을 구축한 맥스 포(MAX-IV) 연구소를 방문,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기초과학 연구 협력 등을 논의한다.

14일에는 덴마크 테니스 줄 페데렌 에스비에르환경청장과 회담하고, 전남의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한 신안지역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목포 신항 배후단지 조성, 해상운송지원 전용부두 구축 등을 구상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증식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